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1년 7월

선교편지 제 145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리핀에 거주한지 벌써 14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곳 생활에 매우 익숙하며 현지인들을 잘 이해 할 만도 한데, 사실은 이와 반대로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같은 동양인이라서 공통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지나온 역사, 문화, 세계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갈등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도달하는 결론은 이방인으로 이곳에 온 내가 현지 문화와 정서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문화가 옳다는 확신 때문에 내 방식대로 현지인들을 가르치거나, 고치려고 하면, 현지인들에게 가까이 다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과 얼굴이 일그러져 있으면,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약속 시간보다 한, 두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 이곳의 문화입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현지인들을 고치려 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차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디고스는 '다바오 델 수르'라는 주 정부에 속해 있는데, 현지 선교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까가스'라는 이곳의 주지사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동생은 주정부 부주지사이고, 그의 부인은 상원의원이며, 그의 아들은 디고스 시장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더라도 온 가족이 선거에 출마한 것도 놀랍고,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두가 투표를 통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달에 까가스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별세를 했습니다. 이곳 모든 주민이 슬퍼한 것은 물론이고, 아들이 시장으로 있는 디고스 도시는 일년 동안 매일 오후 3시에 묵념을 하도록 선포하고, 매일 3시에 도시 전체에 묵념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다바오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이 22년간 시장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2016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그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을 맡게 되었고, 그의 아들은 부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의 대통령도 6년 단임제인데, 내년 2022년은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입니다. 내년 임기가 종료되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6년을 더 연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으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아버지 대신 현재의 다바오 시장인 그의 딸이 도전하고, 그의 아들은 다바오 시장으로 출마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또 다른 막강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마르코스'는 21년간 필리핀을 통치하며 부정부패와 계엄령 등으로 악명을 떨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임기 초기에는 농업, 공업 등 경제 개혁 정책들과 교육 진흥 등 국가 재건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점차 필리핀 내의 공산당과의 갈등 및 재선을 위한 부정부패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직 기간 동안 행한 각종 부패는 당시 100억불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유명하며, 그 후유증으로 인해 아직도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1960년대에 필리핀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2020년 현재 일인당 국민 소득이 약 \$34,000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아직도 \$3,340에 불과한 것을 보면 그 부패의 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부패와 사치에 대해서는 마르코스 대통령보다는 그 부인인 '이멜다'가 더 유명합니다. 민주 시위대에 쫓겨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여 하와이로 망명을 한 이후에, 대통령 궁에서 발견된 2,200켈레나 되는 고급 신발과 명품 백, 보석 등은 이멜다가 얼마나 사치한 생활을 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1989년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사망을 하고, 이멜다와 그 후손들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르코스 가문이 역사 속에 잊혀진 것이 아니라, 현재 90세가 된 이멜다는 하원의원으로, 그 아들은 상원의원으로, 큰 딸은 주지사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아직도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 '봉봉 마르코스'를 2022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민주주의 사회이면서도 '지도자 중심' 과 '가족 중심'의 성향이 짙습니다. 특히 지도자 중심으로 맹종에 가깝도록 일치 단결하는 모습은 이게 과연 민주주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매우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 중의 하나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정책을 지지하고 선호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들의 지도자를 마치 가족처럼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자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도 동일하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 조사에 의하면 2022년 대통령 선호도 1위는 현 두테르테 대통령의 큰 딸인 '사라 투테르테'이고, 2위는 전 마르코스 대통령의 큰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입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지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필리핀은 현재 코로나 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지도자를 보내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주 앞에 모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딤후 2:2-3)



필리핀의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넘쳐서 병원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소식이 반복해서 들려오고 있고, 급증하는 사망자 시신 처리를 위해 화장 시설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어두운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발병 초기만 하더라도 민다나오 섬의 확진자 수는 필리핀 내에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였는데, 최근에는 마닐라를 포함한 그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작년 초부터 감염 정도에 따라 각 지역을 ECQ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와 GCQ (General Community Quarantine)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초기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거의 모든 지역이 ECQ로 지정되어 오랜 동안 봉쇄령 (Lockdown)을 시행했습니다. 18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바깥 출입이 금지되고, 시장을 포함한 모든 공공 장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 했습니다. 가정 별로 증명서를 발급하여, 한 가정당 단 한 명만이 외출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코로나가 예방되는 유익이 있었지만, 도시 봉쇄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지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은 정말 처참하여 실적을 당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로 갑자기 나라 전체가 빈궁에 처해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더 이상 봉쇄령을 지속할 수 없어서 ECQ와 GCQ외에 MECQ (Modified ECQ) 와 MGCQ (Modified GCQ)를 추가하여 전체적인 제한이 아닌 부분적인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바오는 MECQ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ECQ보다는 완화되어 주중에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허락하고 있지만, 주일은 'Home Stay Day'라 칭하고 모든 외부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 6월은 그에 대한 단속이 훨씬 더 강화되어서, 위반자들은 벌금을 물어야 하고, 현장에서 구타를 당할 수도 있고, 투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사역은 매우 힘겨울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교인들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각 교인의 집들을 심방하는 일에 한층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심방이라고 해도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반갑게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짧은 기도와 준비한 쌀을 전해 주는 것이 심방의 전부 입니다. 그렇지만 만날 때마다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반갑고 감사한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중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동안 비교적 조용히 머물러 있던 교인들이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고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방에도 같이 동행을 하고, 노방 전도에도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헌금'을 정기적으로 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의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폐는 5페소 (약 10 센트/ 120원) 짜리 동전 입니다. 가게에서 생필품과 간단한 음식을 사 먹을 때에 가장 많이 통용되고, 아이들의 용돈에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더불어 '교회 헌금'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전이기도 한데, 이러한 동전이 모여 현재 디고스 예일교회의 주중 헌금 수입이 평균 약 1,500 페소 (약 \$30 / 36,000원) 정도 이며, 아팔라야 교회는 약 350 페소 (약 \$7/ 8,4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재정으로 어떻게 현지 사역자들의 사례를 충당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보다 헌금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디고스 교회의 주일 헌금은 지난 4 ~ 5년 동안 아팔라야 교회와 별로 다름이 없이 주중 평균 1,000페소 (\$20 / 24,000원)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교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록 교회에서 제공하는 구호미를 받으며 이전 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주일 헌금이 조금씩 증가하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조건과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일어나게 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3-4)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